


**오늘의  
게시판**
**제 8회 남도 짚·풀 문화제** 10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

&lt;4일&gt;

▲제 7회 경찰부대상록 및 6·25 순국 희생자 추모행사=오전 11시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주모현장, 6·26 참전 유공자 및 경우회원 등 110명 참석예정.

▲추석 명절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=오후 2시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·88고속도로 담양 IC, 터미널에서는 시민안전봉사단 등 25명이 구성객들에게 흥보전단 및 음료 제공, 담양 IC에서는 관광홍보를 배부.

▲전진하고 안전한 중추절 보내기 캠페인=오후 3시30분 광주역 광장.

&lt;5일&gt;

▲정남진 장흥군 토요시장 추석맞이 이벤트=오

후 3시 장흥군 토요시장 특설무대.

▲제 9회 면민화합 노래자랑=오후 7시 장흥군 안양초교.

▲제 8회 남도 짚·풀 문화제

=10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.

▲양단형 개인전=10일까지

무등갤러리 별관.

▲조선대 디자인학부 졸업전=7일까지 조선대 미술관.

▲신세계미술제 해외교류전=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.

▲전남대 평생교육원 동양화과정 전시회=8일 까지 북구청 갤러리.

▲광주비엔날레 기념 'Paper Propose전'=29

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.

▲광주비엔날레 기념 '손아유전'=12월 31일까

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.

▲광주비엔날레 특별전 '미술 오케스트라'=25

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.

▲티향속에 삶과예술=11월 14일까지 의재미술관.

▲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=목포시

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. 목포시가 수

집한 사진 200점 전시. 올해 말까지. ~


**▲호쾌법 실시(1413)**

▲네덜란드 화가 하르멘츠 웹브란트 세상 떠남

(1669)

▲크림전쟁 발발(1853)

▲앨빈 토플러 태어남(1928)

▲우리나라 첫 발성영화 '춘향전' 단성사에서

개봉(1935)

▲금은등록제 실시(금값폭등) (1947)

▲나비연구가 석주명 세상 떠남(1950)

▲소련, 세계 첫 인공위성 스포트니크 1호 발사

(1957)

▲국도개발원 발족(1978)

▲건설부, 광주~대구간 도로를 '동서고속도로'

로 명명 (1980)

▲영화 '하얀전쟁', 제5회 동경국제영화제 최우

수작품상 최우수감독상 받음(1992)

▲현법재판소, 영화사전집의 의무조항 위헌판

결 (1996)

▲프랑스 화가 베르나르 뷔페 자살(1999)

▲대중 골프장인 난지골프장 개장(2005)


**뉴스퀴즈**

32. 순수 국내파 피아니스트가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피아니스트는 지난달 24일 영국에서 폐막한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

리즈 콩쿠르는 쇼팽 콩쿠르, 반 클라이번 콩쿠르와 함께 세계 최정상의 피아노 콩쿠르로, 한국인 연주자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지난 1963년 창설된 이 대회 역사상 처음입니다.

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

①김선욱 ②정명훈 ③조수미 ④장한나

**참여 방법**

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,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,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. (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)

**보내실 곳**

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-7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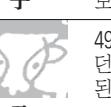
**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**

10월 4일(음 8월 13일 丙寅)



48년생 새로운 일 있을 수 있고 협력자가 나타난다. 60년생 속전속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큰 이익이 생긴다. 72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결합함이 지속된다. 84년생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면 가능성은 보인다.

♣행운의 숫자: 22, 40 ♥행운을 주는 말: 배리



49년생 뛸 뜻 듯 듯한 일은 있으나 성사는 미지수다. 61년생 계획했던 좋은 일 이루어지리라. 73년생 집이 뒤승승하니 점착하면 정리된다. 85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길 수니 말을 조심하라.

♣행운의 숫자: 02, 36 ♥행운을 주는 말: 활발



50년생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보인다. 배풀려 들어온다. 62년생 모든 외형을 줄이고 실里로 바꿔라. 74년생 과욕을 버리고 친구 간의 친밀감을 불씨가 된다. 86년생 독신은 밖으로 나가거나 즐거운 일이 생긴다.

♣행운의 숫자: 04, 38 ♥행운을 주는 말: 화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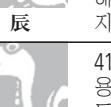
51년생 길가가 적으니 조심하여 추진하는 것이 삼책이다. 63년생 미운사람이나 나타나니 결과는 좋을 수 있다. 75년생 승부수를 띄워보라 결과는 여기는 죽이다. 87년생 차기 일을 뒀을 때마다 보려고 하면 막히며.

♣행운의 숫자: 04, 36 ♥행운을 주는 말: 화려



40년생 대고는 없으나 자신감 있게 활동하라. 52년생 해망적 설계는 있으나 금하게 서두르는 바다. 64년생 속으로는 통한 듯하지만 오히려 불씨가 물든다. 76년생 아는 길로 들어가고 우선 만족에 들뜨지 마라.

♣행운의 숫자: 08, 26 ♥행운을 주는 말: 여유



41년생 큰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실망할 수도 있다. 53년생 절대로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도 불리하다. 65년생 옛 인연을 지속하라 도움이 있을 수 있다. 77년생 산뜻한 새 맛으로 잡간의 즐거움은 있다.

♣행운의 숫자: 05, 27 ♥행운을 주는 말: 연구



42년생 좋은 소식은 들려오나 서둘러는 말아라. 66년생 고생을 하였으나 숨은 돌리고 주변을 보라. 78년생 시기상조니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라.

♣행운의 숫자: 13, 45 ♥행운을 주는 말: 친구



43년생 앞으로 불편사가 상상되나 흥사는 없다. 55년생 숨건을 조심하라. 텁하는 자가 보인다. 67년생 시기는 빠르니 숨통은 터졌다. 79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협조가 있다.

♣행운의 숫자: 06, 33 ♥행운을 주는 말: 적극



44년생 서로 다른 나거나 서로 和愛가 삼책이다. 56년생 부친의 건강도 살펴보고 인사를 올려라. 68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한다. 80년생 득은 있고 시비를 가리는 송사가 발생할 수 있다.

♣행운의 숫자: 19, 25 ♥행운을 주는 말: 낙천



45년생 정리를 잘하면 득은 저절로 생긴다. 57년생 모든 일이 난조로다 신중하게 내실을 기하라. 69년생 시기가 빠르니 자기 사람으로 주변을 보자. 81년생 우연한 기회가 좋은 일로 연결되니 준비하라.

♣행운의 숫자: 07, 26 ♥행운을 주는 말: 정확



46년생 세자는 새롭게 접경 할 필요가 있다. 58년생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이니 분수를 지켜라. 70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면 만족한다. 82년생 설계를 다시 하라 신자나 새롭다.

♣행운의 숫자: 15, 37 ♥행운을 주는 말: 지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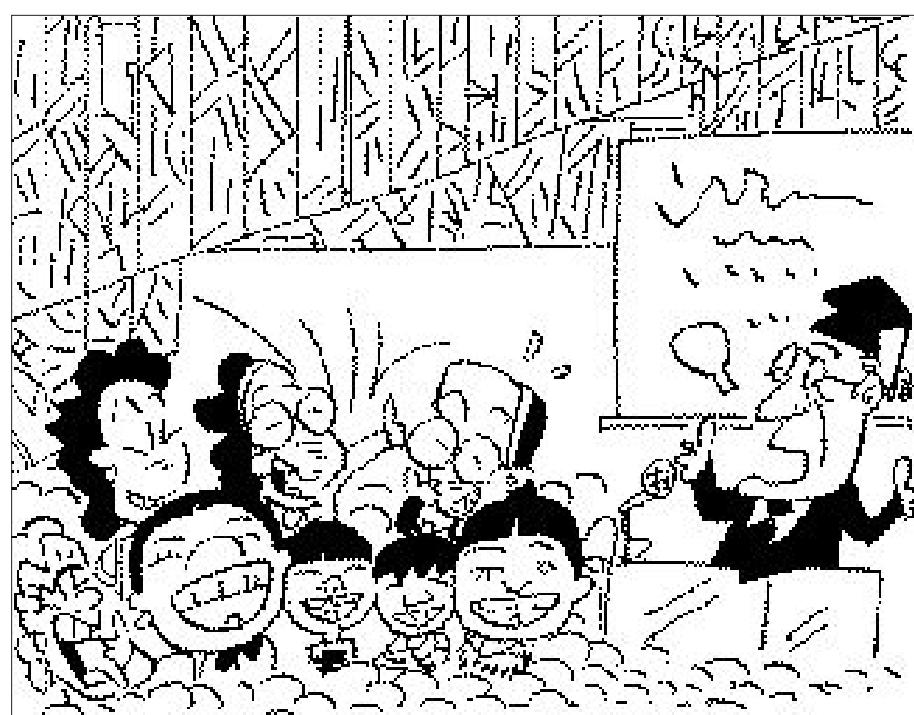
47년생 過期의 무리라는 큰 제를 얻으나 그에 조심하라. 59년생 불로소득을 바라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. 71년생 기운이 넘치고 이목을 앞서나 緩急을 調整하라. 83년생 새로운 인연은 좋은 결과가 된다.

♣행운의 숫자: 09, 29 ♥행운을 주는 말: 시름

www.cafe.daum.net/sajoo114 ☎ 011-632-6121

**숨은그림찾기**

&lt;41&gt;



(찾) 아 보 세 요 슬리퍼, 바늘, 열대어, 종이배, 음표, 펜촉, 뜯단배, 뜻

구두, 펜촉, 대접, 바늘, 피자조각, 은행잎, 왕관, 서틀록

**행마의 요령**

4보(51~69)

白 옥 광석  
<광주시교육청 A>

黑 서 재 중  
<니주시청 A>

전보에  
서도 얘기  
했지만 백  
로는 상  
변의 흑

석점을 공격할 찬스였다.  
옥광석 5단이 백 ⑥로 헛다리를 짚

자 서재중 5단이 거꾸로 리듬을 타기 시작한다. 흑 51부터 55를 선수해두고 드디어 숙제이던 상변을 57로 젖혀 움직이기 시작한다. 이것으로 상변은 한 수가 완전히 달라져서 흑이 쉽게 타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.

〈오규철 9단·본보 바둑해설위원〉

생활의 중심 SK telecom

KT&G 전남본부

**바둑 소식**
**한게임 바둑리그 1위 복귀**

경기 한게임이 광주 Kixx를 제치고 1위에 복귀했다.

한게임이 최근 부산 파크랜드와 한국바둑리그 11라운드 경기에서 3-1, 승리를 거두고 다시 선두(6승3무 2패·승점 21점)에 올랐다. 광주 Kixx는 일주일 만에 2위로 물러났다.

한게임의 온소진 3단은 이 대국에서 조현훈 9단을 267수 만에 백 1집 반승으로 꺾었고, 이영구 6단은 파크랜드의 김주호 7단에게 181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.

선두 한게임이 2점차 뒤진 광주 Kixx는 오는 7일 인천 매일유업과 격돌한다.

〈윤영기자 penfoot@kwangju.co.kr〉

**굿모닝 잉글리쉬 <747>**

with nothing on

아무